

실천력이 모자라는, 기획과 말이 앞서는 행정 환경행정 곁들고 있다

신문 사에는 세가지의 人事가 있다. 평기자가 차장대우로 승진한다거나 부장이 부국장대우로 승진하는등의 직급인사가 첫 번째다.

두번째의 인사는 부서간 인사다. 사회부에 있는 아무개가 문화부로 간다거나 경제부에 있는 아무개가 체육부로 간다거나 하는 인사다. 기자들이 은연중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인사가 바로 이 인사다.

세번째의 인사는 같은 부서안에서의 이른바 출입처조정이다. 방이 불지않는 비공식인사다. 분위기가 좀 수상해지는가 싶으면 어느날 부장이 정색을 하고 모두를 불러모아 전격발표하는 게 보통의 경우다.

환경처가 잠실에 있다는 것만 아는 상태에서 어느날 부장은 4월27일부터 환경처를 나가라고 했다.

환경처에 「나간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신고를 했더니 70%가 “아, 거기 좋은데다. 앞으로 매우 중요한 데다”라고 말을 했다. 20%는 “그럼 꼭 거쳐야할 데지. 열심히 해봐”라고 말했고 나머지 10%는 씩 웃으며 “잘 해봐, 이젠 좀 한가 하겠구나”라고 말했다.

맨뒤의 10%는 대부분 사내외의 언론계선배들이었다.

70%의 말을 믿고 나는 환경처가 중요한 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20여일간 환경처본관의 1층에서부터 7층 까지를 뒤지고 다닌 끝에 얻은 결론은 환경행정이라는게 「구찌(口)행정이구

나」하는 점이었다. 중요함에 비교해 실천력이 모자라는 행정, 기획과 말이 앞서는 행정이 처음 비친 환경행정이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처음 쓴 사회면 톱기사는 「환경행정 곁들고 있다」는 제목이었다.

그뒤 8개월쯤이 흘러 나는 이제 더이상 환경처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었다. 환경처는 문화부, 공보처와 함께 맨마지막에 생긴 개발도상중인 정부중앙부처 일 뿐이다.

환경처는 한마디로 아직은 힘이 없다. 작가 김승옥은 「염소는 힘이 세다」는 제목의 소설에서 소설 틈틈이에 밀도 끝도 없이 「염소는 힘이 세다」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이와 비슷하게 취재하다보면 환경처는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자주 절감한다.

환경처가 힘이 없어서일까. 공장을 다니다보면 환경관리인도 힘이 없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만난 20명가량의 환경관리인중 자신의 사내입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방문 며칠전 공해단속에 적발된 안산 어느 공장의 환경관리인밖에 없었다. 그 관리인은 사장에게 세번째 적발과 이에 따른 조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초급기술자 몇명이 술집으로 찾아와 「양수겸장」으로 심기가 불편했던 사장은 울며 겨자칠한 소태를 활는 표정으로 그러자고 했다.

환경처가 여타 경제 정책이 입안·집행되는 과천에서 20km쯤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환경문

제는 각 공장마다 社主의 주요 의사결정요소중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비쳤다면 나는 약한 환경처를 「나오는」 약한 기자이기 때문일까. 비 공식으로 社主들에게 들은 얘기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만큼이나 씩히는 환경공무원도 있었다.

이 부처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보사부의 일개 계에 불과했다는 이력을 앞에 놓고 현재를 개선하기 위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수단중 채찍(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해야한다고 믿는다. 채찍은 환부에 대한 對症요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람은 맞다보면 타성이 붙는다. 당근을 놓고 보자면 울들어 10월까지 2백 20억원쯤만이 공해방지 설비자금으로 용자됐다.

시설업자들은 시공의 잘하고 못함보다 용자를 끌어올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려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술집에서 뿌려진 팁은 2백 20억원의 50배인 1조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0만원짜리 브래지어등 사치성소비재 도입액은 울들어 2천2백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기술, 자금지원과 함께 환경행정이 단속위주에서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같은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나간다면 환경처는 명실상부한 「처」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환경공무원들이 위는 물갈이를 하고 아래는 사명감을 더 갖게 해야된다고 믿는다.

환경행정은 보사행정의 한 갈래가 아니다. 환경처장관은 경제장관회의의 멤버다. 유능한 대외 교섭력을 갖추고 환경과 행정과 경제를 잘 아는 고급공무원이 필요하다. 환경정책의 입안자는 기본적으로 니고세이터라고 믿는다. 시·도공무원을 포함해 하위직들에게는 추운 겨울날 굴뚝을 탈때도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세무공무원에 맞먹는 악명이 사라져야한다. 세무공무원의 비리는 돈의 위치이동을 안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비겁한」 환경공무원은 그 수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나라의 환경을 파먹는 결과다.



金 鉉 宗
(중앙경제·사회부기자)

**환경부처와 환경인들이
대접받는 사회는
정치자들의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환경관리인들은
수요·공급자이며
또한 제작자이기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철의 여인 대처가 사임을 발표하고 난뒤 대처의 사임을 물고온 장본인인 헤즐타인을 영국의 환경장관에 임명했다.

대처를 제외한 보수당내 후계후보 3인이 각각 수상, 국무, 환경장관이 되었다는 외신을 읽고 솔직이 감명받았다. 그렇다고 3金중의 한명을 환경장관으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환경부처와 환경인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사회가 빨리왔으면 싶다는 말이다.

그런 사회는 대통령의 통치차원 결단이나 구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요자인 국민들이 만드는데 그 국민들 중 환경관리인들은 수요자이자 공급, 제작자이기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는다. ◀